

보 도 설 명 자 료

(19. 12. 13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'러시아 원전수출 무역사절단'은 기자재 수출을 포함한 원전 전주기 수출확대 노력의 일환으로서, 정부는 신규수주는 물론 다양한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

(조선일보 12.1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'러시아 원전수출 무역사절단'은 기자재, 운영서비스를 포함한 원전 전주기 수출확대 노력의 일환이며, 이를 통해 신규원전은 물론 타국이 운영하거나 수주한 원전까지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를 넓힐 계획입니다.
- ◇ 12월 13일 조선일보 <원전시장 枯死시키고...러시아에 부품 팔러간 정부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보도 내용

- 정부의 러시아 해외 사업 공급망 참여노력에 대해 일각에서는 “최고 사양의 엔진을 탑재한 완성차를 수출하던 회사가 다른 회사에 타이어라도 팔게 해달라고 하는 격”이라고 평가

2. 설명 내용

- 그간 수차례 밝힌 바*와 같이 **대형원전 수출 노력을 지속함과** 동시에 기자재, 운영 등 원전 **전주기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**

* '19.9.19일 「원전 전주기 수출 활성화 방안」 발표 등

- 이에 따라 사우디, 체코, 영국 등 **대형원전**은 그간의 **수주활동을 지속하면서**, 원전도입국에 대한 **맞춤형 전략** 등을 통해 **보다 적극적인 지원** 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,
- 이와 더불어 **기자재, 운영 서비스** 시장 등 우리 **중소·중견기업들이 진출이 가능한 분야에 금융, 인증, 정보 지원** 등을 강화하고 있음

- 특히 금번 민간 합동 '**러시아 원전수출 무역사절단**' 파견은 그동안 미흡했던 **기자재, 운영·서비스 시장 진출**을 위한 **구체적 후속 조치임**

- 특히 러시아는 **해외의 신규 원전사업**은 물론, **기존 운영 원전의 성능개량, 유지보수** 등을 추진하고 있어서 **한국 원전산업에** 관심이 컸고, **우리 기업과의 협력 의사**를 적극 표명해옴
- 우리도 미국, 유럽 등 기존 진출시장 뿐만 아니라, **러시아와 중앙 아시아 진출** 등을 감안하여 **전략적으로 사절단을** 추진한 것임

- 금번 사절단 파견을 통하여 양측이 **산업협력채널 구축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고**, 한려 60여개 기업이 참석하여 **100여건의 B2B 미팅**을 갖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양하였음
- 정부는 앞으로도 **대형원전 수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함**은 물론, **기자재, 운영·서비스 시장의 진출 확대** 또한 **전폭적으로** 지지할 예정임.

※ 문의: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 김진 과장/임태섭 사무관 (044-203-5332)